

광주교육청 멀쩡한 청사 이전 또 왜?

작년 5월 백지화... 재정난 불구 500억 사업 재추진 논란

장휘국 교육감, 황우여 새누리 대표에 협조 요청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불요 불급하다'는 여론에 밀려 백지화했던 청사 이전 사업을 재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이 "재정이 열악하다"며 정부에 200억원대 교육예산 추가 지원을 촉구하면서 500여억원이 필요한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전을 검토 중인 현청사 건물에 10억원을 들여 증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남 시교육청을 방문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시교육청 청사 이전 계획을 보

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건축비 400억원과 설계비 112억원 등 모두 512억원에 달한다. 사업비는 폐교 등 유채산을 매각, 자체재원으로 362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교육기술과학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현 청사가 노후화했고, 부지도 협소하다. 청사 주변에 광주주거유니버시티 선수촌 아파트(24~30층)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혼란으로 행정지원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고 사업 추진배경을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1988년 현청사가 지어졌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이 공부하는 노후 학교 재건축 등 학교 인프라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조사한 학교 증·개축과 교육환경 관련 사업비는 모두 1120억원이었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342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의 비논리적인 행정도 거론되고 있다.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도 현 건물에 2개층을 증축하기 위해 예산 9억5000만원을 들여 오는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정부의 누리

과정 사업확대에 대한 예산 200억원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올해만 5세에서 내년 3~4세까지 확대, 시행하는 데 따른 재원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청사 부지를 활용해 새청사를 신축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백지화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하계 유니버시티 이후 선수촌 아파트에 입주자가 시작되면 고층아파트와 교육청 주변 교통혼란 가중으로 학교지원행정의 역할이 축소돼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겨울 재촉비

남해안엔 돌풍·번개

주말인 17일 광주·전남지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 광주·전남지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시작돼 17일까지 이어질 것이다. 비는 17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고, 강수량은 10~40mm로 예상된다.

남해안과 내륙 일부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고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부분지역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온은 광주가 최저 3~4도에서 최고 13도로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8분 해질 17시 25분 달돋이 09시 27분 달질 19시 47분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다.

지역	최저/최고
광주	4/13
목포	5/12
여수	7/11
나주	2/13
완도	5/14
구례	1/14
강진	1/12
해남	1/14
장흥	1/14
순천	0/13
영광	1/12
진도	3/13
전주	0/14
군산	1/11
남원	-3/14
홍산	8/13

〈오전〉 바다: 풍향 남서, 파고 0.5~1.0m, 감기/수지: 낮음, 지외선/수지: 낮음, 뇌졸중/수지: 낮음

〈오후〉 바다: 풍향 남서, 파고 1.0~2.0m, 감기/수지: 낮음, 지외선/수지: 낮음, 뇌졸중/수지: 낮음

◇주간날씨: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최저/최고: 7/11, 4/13, 4/13, 5/12, 4/13, 5/13



'희망담은 연탄나누기' 15일 오후 광주시 북구 건국동주민센터는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초등학생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배달해주는 '희망담은 연탄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내년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 수록된다

2013년부터 배포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이 수록된다. (사진) 중학교 역사교과서 5·18민주화운동 수록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집필기준을 삭제했다가 광주지역은 물론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광주시는 15일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출간하는 7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수록 여부를 문의한 결과, 모든 교과서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국내외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등이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 미래엔출판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희생됐다", "2011년 영국에서 열린 제 10차 세계기록유산국제자문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는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연계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이 수록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출판사 등을 압박해 왔다. /박진표기자 jkz@kwangju.co.kr

광주지역 소방관 4명 중 1명 이상후 스트레스장애·우울증 겪어

광주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의 24%가 이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수면장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문상필 광주시위원이 시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올해 소방관 1089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한 결과, 23.7%인 258명이 이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고위험군은 40명, 위험군은 218명이었다. 문 의원은 "광주시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예산을 2010년 1800여만원, 2011년 2000여만원밖에 편성하지 않아 실질적인 예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근무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닌 세분화된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한데도 내년도 소방공무원 1인당 건강검진비는 일반공무원(20만원)보다 적은 18만1000원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돼지 유전체 지도 완성

인체 이식용 바이오장기 개발 '파란불'

국내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로 돼지 유전체 지도가 완성됐다.

15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이 한국 대표로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 연구로 돼지 유전체가 완전히 해독돼 앞으로 돼지 품종 개량을 물론 인체 이식용 바이오 장기 연구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돼지 유전체 해독을 통한 돼지의 집단통계학과 진화 해석 가능'이란 논문으로 과학 전문지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했다.

돼지 유전체 해독은 2006년 '듀록' 암컷돼지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우리나라 연구진 14명을 포함, 미국·영국·프랑스·일본·중국·덴마크·네덜란드 등 8개국 132명의 연구자가 매달린 끝에 19개의 염색체에서 총 29억 염기쌍을 해독,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다.

이미 유전체 해독이 완료된 소·말·개 등의 포유동물과 이 돼지 유전체를 비교한 결과 장기와 조직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인간과 돼지, 개가 서로 비슷해 돼지를 바이오 장기용 동물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 돼지에서서 개(1094개)보다 많은 1301개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가 발견돼 돼지의 냄새 맡는 능력이 빠르게 진화했음이 확인됐다. 반면 미각 관련 유전자는 엄격히 재배열로 인해 기능이 떨어져 사실상 돼지는 짠맛을 느끼지 못하며 쓴맛도 인간 25개보다 적은 17개의 유전자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전체 해독으로 확인한 결과 돼지는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유래, 약 100만년 전 유럽과 아시아로 나뉘어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10회 광신대학교 전국학생 음악콩쿨 전국 초·중·고등학생 음악 경연대회

2012 Kwangshin Music Competition

일 시: 2012. 11. 24(토) 오후 1시

장 소: 광신대학교 콘서트홀, 국제홀

접수기간: 2012. 11. 1(목) ~ 11. 21(수) 오후 5시까지

참가자격: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고등부는 당해년도 졸업자 포함-대학생 제외)(단, 고등부 당해년도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연부문: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각 부문 행사일정은 행사 전날 본 대학 일반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함)

참가신청: 참가비: 초등부 3만원 / 중·고등부 7만원
입금계좌: 광주은행 416-107-052719 (예금주: 최보라)
※반드시 참가자의 이름, 전공 기재할 것 / 입금후 전화확인 요망.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이 일체 불가함.

접수: 인터넷 접수: 광신대 홈페이지 (www.kwangshin.ac.kr)
방문접수: 광신대학교 진리관 4층 음악학과 사무실

시상: 대상: 중·고등부 각 부문 1등 입상자 중 가장 우수한 자 (심사결과 90점 미만 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없음)
각 부문: 1등, 2등, 3등,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우수지도교사상: 입상자 다수 배출자(고급 상패와 상장)

특전: *대상 경연 진출자 중 선발함.
대상: 상금 오십만원 (500,000), 고급 상패와 상장
최우수상: 상금 삼십만원 (300,000), 고급 상패와 상장
우수상: 상금 이십만원 (200,000), 고급 상패와 상장
고등부 입상자: 본고 진학시 장학금 지급(대상/4년, 1등/3년, 2등/2년, 3등/1년)

과제목: 피아노: 초등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초등부5-6학년, 중등부, 고등부1-2학년, 고등부 3학년. 예선 없음, 본선 자유곡 1곡. 성악: 초등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초등부5-6학년, 중등부, 고등부1-2학년, 고등부 3학년. 예선 없음, 본선 자유곡 1곡. 관현악(현악부문, 불꽃부문, 관악부문): 초등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초등부5-6학년, 중등부, 고등부1-2학년, 고등부 3학년. 예선 없음, 본선 자유곡 1곡 (협주곡일 경우 카덴자 포함). 작곡: 고등부. 주어진 동기에 의한 3부형식의 피아노곡.

유의사항: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할 것. 필요한 악기 및 반주자는 출연자가 준비하여야 함. 참가자의 기량이 충분히 파악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심사위원장이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음.

문의처: 광신대학교 음악학과 사무실
전화 (062) 605-1130, 팩스(062) 571-725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